

2018년 11월 6일, 제주시 월평동 월평동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김양언(남, 1940년생, 제주시 월평동)

- 제주시 월평동(다라곳)에서 출생, 월평동에서 11대를 살아오다가 1948년 4·3사건 때 제주시 화북동으로 피난하여 6년 간 거주하였다. 1954년 고향 마을이 재건된 뒤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제주시 영평동(다라곳) 마을의 마주^모를 지경에는 강씨 집안의 선묘가 있었다. 처음 지관이 구산(求山)을 할 때, 마주^모를에 있는 종남수의 물이 마르면 선묘를 이장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고 한다. 그러나 강씨 집안은 지관의 말을 듣지 않았고, 결국 큰 돌이 떨어지면서 선묘터에 물이 새고 말았다. 강씨 집안은 묘를 쓴 후로 4년 간은 재산이 불어났지만, 결국 지관의 말을 듣지 않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다.

[제보자] 건디 마주^모를에 전설이 있어요이. 그디. 산이 그디 저 지금도 거 강씨 산도 있고 그 바로 옆에 그 이디 입도한 할머니 산이 잇어낫는데. 그디 그 산을 쓸 적에 강집이서 산을 쓸 적에 무슨 말을 헷나 허며는

“종남수 물이 마르면, 그 물 먹어난 물이 마르면은 이 산을 이장해야만 됤다.”

이런 전설꺼지 있어요. 건디 그 동산에 그, 저 산을 써 있는데, 그 물이 아닌 게 아이라 멧 년 후에는 막 하천에도 돌도 둥글도 경허니까 잘도 크게 우물이 훈 이삼십 평 널르게 물이 잇어 낫어요. 물이. 경허니까 말이 많이 먹거든. 경허 단 보니까 그 큰 돌도 털어지믄서 돌로 울려 분 모냥이지, 그 굴렁지니까. 그래서 금 나서 땅에 물이 새여 불어 불거든.

막 비와 난 때, 그 막 우리 어린 적에는 거기서 해염도 치고 뭐허고 했는데. 경헌디 그기 물이 훈 이삼 일 웬면 썩썩 빠져 불거든. 옛날은 안 빠져 낫다는 거여. 경헌디 그 강집잇 산이 이젠, 게니까 전설로 우린 들은 말인데. 그 강집이 그로후젠 사년 즈음 됐어도 재산이 엄청나게 좋아났는데 이제 재산이 전부 없어졌다.

“말르며는 물이 마르걸랑 이장을 허라.”

거 신안이 경 골았다는디.

• 핵심어: 마주^모를, 종남수, 이장, 재산, 신안(지관), 강집(강씨 집안), 하천, 돌